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8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박정현 · 이연희  
안규백 · 이기현 · 조계원  
조 국 · 허 영 · 조인철  
오세희 · 박해철 · 복기왕  
정일영 · 김원이 · 박수현  
이병진 · 정준호 · 황정아  
김성환 · 박희승 · 박지혜  
의원(2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,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  정        안
제15조(진료거부 금지 등) ①·② (생    략) <u>&lt;신    설&gt;</u>	제15조(진료거부 금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</u> <u>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</u> <u>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</u> <u>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</u> <u>를 하여야 한다.</u>